류현진, 다저스 남는다 | 열흘간 고심 끝에 퀄리파잉 오퍼 수용

현실·실리 택한 RYU…'내구성'을 증명하라!

올해 QO 대상 7명 중 유일하게 수용
연봉 203억원 챙기고 'FA 재수' 선택
내년 만 32세, 성적으로 몸값 올려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13일(한국시간) 원 소속구단인 LA 다저스가 제시한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였다. FA 권리 행사를 1년 늦추는 대신 내년 연봉으로 큰 금액을 확보하게 됐다. AP뉴시스

류현진(31)이 LA 다저스에 잔류한다.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QO·Qualifying Offer)를 받아들여 프리에이전트(FA) 재수를 택했다. 연봉 1790만 달러(약 202억5000만원)에 1년 더 다저블루 유니폼을 입는다.

MLB닷컴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은 13일(한국시간) "류현진이 올해 QO를 받은 7명 중 유일하게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2012년부터 도입된 QO를 받아들인 역대 6번째 선수다. 류현진과 달리 외야수 브라이스 하퍼(워싱턴 내셔널스), 포수 야스마니 그란달(다저스), 투수 패트릭 코빈과 외야수 AJ 폴락(이상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투수 댈러스 카이클(휴스턴 애스트로스), 투수 크레이그 킴브럴(보스턴 레드삭스)은 QO를 거부하고 FA 시장으로 나갔다.

류현진은 2012년 말 다저스와 6년간 총액 3600만달러(약 407억8000만원)에 계약했다. 계약이 만료된 올해 연봉은 783만달러(약 88억7000만원)다. QO를 거부하면 FA 신분을 얻지만, 지난 열흘간 심사숙고한 끝에 내년 시즌 후 QO 절차 없이 온전하게 FA 권리를 얻는 길을 택했다. QO는 원 소속구단이 해당 선수에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류현진이 QO를 받아들인 결정적 이유는 역시 '내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2013년 14승8패·평균자책점(ERA) 3.00, 2014년 14승7패·ERA 3.38로 2년 연속 강력한 좌완 선발투수임을 알렸다. 그러나 2015년 투수에게는 치명적인 어깨 수술을 받은 뒤로는 올해까지 늘 '건강'에 물음표가 따라붙었다. 2015년은 통째로 날렸고, 2016년에는 1경기 등판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구단의 부상 관리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25경기에 기용됐고, 올해는 별 탈 없이 출발하는 듯했으나 허벅지 부상 탓에 5월초부터 8월초까지 장장 3개월간 쉬었다.

이처럼 지난 4년간 수술과 후유증, 크고 작은 부상을 겪은 까닭에 류현진이 QO를 받자 대다수 미국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갑론을박하면서도 'QO 수용'을 전망했다. 2019시즌을 건강하게 마쳐 몸값을 높인 뒤 FA 시장의 평가를 받는 편이 유리하다고 분석해왔다. 내년 시즌 후에는 QO라는 달갑지 않은 절차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지는 것도 장점으로 부각됐다. QO를 거부하고 올 겨울 FA 시장으로 나갈 경우 류현진을 영입한 구단은 다저스에 신인지명권을 비롯한 적잖은 반대급부를 내줘야 한다.

한인들이 많고 기후가 온화한데다 지난 6년간 몸담은 팀이라는 익숙한 환경, 거기에 더해 200억원에 이르는 연봉을 고려하면 류현진은 현실과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년이면 만 3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걸림돌로 떠오를 수 있지만, 이제 류현진의 과제는 분명하다. 올해 FA 포기를 불러온 '내구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정재우 전문기자 jace@donga.com

ML 신인왕에 오타니·아쿠냐 선정

오타니 쇼헤이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

오타니 22홈런·선발 4승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올해 메이저리그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신인왕의 주인이 가려졌다. 예상대로 오타니 쇼헤이(24·LA 에인절스)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21·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각각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 신인왕 수상자로 선정됐다.

투타 겸업의 일본인 야구천재 오타니는 13일(한국시간) 발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신인왕 투표 결과에서 1위표 25장, 2위표 4장으로 총 137점을 얻어 뉴욕 양키스의 내야수 듀오 미겔 안두하르(89점), 글레이버 토레스(25점)를 따돌리고 AL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일본선수로는 1995년 노모 히데오(투수·LA 다저스), 2000년 사사키 가즈히로(투수), 2001년 스즈키 이치로(외야수·이상 시애틀 매리너스)에 이어 4번째 수상이다. BBWAA 투표에는 30명의 기자가 참여하며, 1위표 5점-2위표 3점-3위표 1점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NL 신인왕으로는 1위표 27장을 비롯해 총 144점을 얻은 외야수 아쿠냐가 선정됐다. 워싱턴 내셔널스 외야수 후안 소토(89점), 다저스 투수 워커 뷸러(28점)가 그 뒤를 이었다. 베네수엘라 태생의 아쿠냐는 올 시즌 111경기에서 타율 0.293, 26홈런, 64타점, 16도루를 올리며 애틀랜타의 NL 동부지구 우승에 기여했다. 특히 올스타전 이후 후반기 68경기에서 타율 0.322, 19홈런, 45타점, 14도루로 펄펄 날며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급부상했다.

오타니의 수상도 일찌감치 예견됐다. 오른쪽 팔꿈치 인대 부상 때문에 투수로는 10경기 선발등판에 그쳤지만, 4승2패·평균자책점 3.31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다. 타자로도 104경기에서 타율 0.285, 22홈런, 61타점, 10도루를 기록하며 타고난 재능을 과시했다.

정재우 전문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PS 입장수입 10,372,959,000원… "KBO, 팬들 있을 때 잘해!"

SK 와이번스 팬들이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의 한국시리즈(KS) 6차전에서 스탠드를 가득 채운 채 응원을 하고 있다. KS는 1차전부터 6차전까지 모두 매진됐다. 잠실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악재 뚫고 '흥행 대박'…KBO, 팬들에게 감사해야

취재파일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103억7295만9000원. 2018 KBO 포스트시즌(PS)의 최종 입장수입이다. 한국시리즈(KS) 6차전까지 열린 올해 PS는 총 16경기에서 100억원이 넘는 '흥행대박'을 기록했다. 2012년(15G·103억9222만6000원) 이후 KBO 역사상 두 번째로 PS 입장수입 100억원을 돌파했다.

숫자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과다. 올해 PS에 참가한 팀들은 SK 와이번스~두산 베어스~넥센 히어로즈~한화 이글스~KIA 타이거즈였다. 원년부터 고정적인 팬층이 많았던 지방 연고팀들이 조기에 PS을 마무리했는데도 가을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았다. 수도권 팀들이 연이은 명승부를 연출하며 각 팀 홈구장을 수많은 관중들로 가득 채웠다.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 모든 성과를 만든 주체는 바로 '야구팬'이라는 점이다. 선수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펼쳐도, 구단이 화려한 마케팅을 구상해도 결국 팬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지 않으면 100억원이 넘는 입장 수입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라운드 위 '공놀이'가 '프로야구'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이유다.

올해 한국야구는 온갖 풍파를 겪었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 이슈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 대표팀 구성, 이로 인한 리그 중단 등 수 많은 다른 문제들이 파생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대표팀의 수장과 KBO의 총책임자가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지만 한국야구를 향한 팬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늘어지는 리그 일정, 다가오는 추위, 가을의 미세먼지 등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 후반기 프로야구는 대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국프로야구를 구해낸 소방수가 있었다. 바로 애증의 관계라도 되는 듯 마지막까지 프로야구의 손을 잡아 끌어준 팬들이었다.

두산과 SK의 KS는 1~6차전은 전 경기 매진됐다. 팬들은 11월의 야구를 보기 위해 언 손을 녹여가며 목이 터져라 응원을 보냈다. 이 중에는 분명 올해 한국야구에 크게 실망한 팬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프로야구의 '꽃'인 가을축제를 위해 마지막까지 자리를 빛내줬다. 프로야구에 관계된 구성원 모두가 감사의 인사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재차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는 스토브리그…17일 FA 자격선수 공시

올 시즌부터 협상 마감 시한 폐지
양의지·최정 등 행선지 관심 집중

2018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지만, 이적시장은 오히려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SK 와이번스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한국시리즈 종료(12일) 5일 뒤인 17일 KBO가 프리에이전트(FA) 자격선수를 공시하면, 그때부터 진정한 스토브리그가 시작된다.

FA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은 KBO가 명단을 공시한 후 2일 이내에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데드라인은 19일인 셈이다. KBO가 다음날인 20일 FA 승인 선수를 공시하면, 해당 선수들은 그때부터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 구단과 협상 가능하다. 2017년부터 원소속 구단 우선협상 기간이 사라졌고, 2019시즌 FA 대상자부터는 기존 1월 15일이었던 협상 마감시한도 폐지된 터라 계약 발표가 지체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두산 양의지

SK 최정

SK 이재원

2018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대표적인 선수는 양의지, 장원준(이상 두산 베어스), 최정, 이재원(이상 SK 와이번스), 박용택(LG 트윈스), 박경수(KT 위즈), 김민성(넥센 히어로즈) 등이다. 특히 KBO리그 현역 최고의 포수로 평가받는 양의지의 몸값은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 포수 포지션에 약점을 안고 있는 몇몇 구단이 영입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터라 이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와 KBO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FA 제도 개편안'의 연내 도입도 무산되면서 금액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KBO가 제시한 개편안의 핵심은 총액 80억원의 상한액인데, 이는 경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터라 비용 감축이 필요하다는 10개 구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그러나 선수협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FA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